



협동조합마중물문화광장은 <Letter 상.상.상>을 매월 발행합니다.
 '상상상'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etter 상.상.상>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깊은 소통의 광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7년 01월 | 통권 4호

마르다를 마리아로 만드는 마샘

안녕하세요.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요즘, 사무처가 있는 소래포구의 바람은 더욱 강하지만 마중물과 마샘의 뜨거운 열기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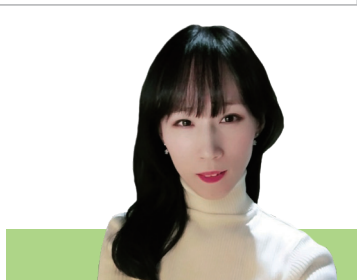
9월부터 마중물에 정식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4개월 동안 제 평생 접한 것 보다 더 많은 토론모임과 강좌, 문화공연을 만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뿌리를 깊숙이 내린 사단법인 마중물에서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이하, 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마중물문화광장 샘(이하, 마샘)도 자라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사무처에 있는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요일에는 사회과학, 인문학 등의 기획 강좌를 들을 수 있고, 목요일에는 책, 영화, 이슈를 토대로 토론하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세미나를 통해 보다 풍성한 토론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시음회, 재즈공연, 기타 다양한 파티들은 제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마중물의 교수님들께서는 사무국장이 제일 똑똑해 질 것 같다고 응원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하지만 가끔은 많은 일들로 행사에 즐기지 못하고 마르다처럼 허둥지둥 일만하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마르다는 마리아의 자매로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는 달리, 부역에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차리느라 바빴던 인물입니다.

저도 마중물을 알기 전에는 항상 마르다와 같이 사회복지사로서 생각해야 할 이념과 가치는 놓친 채 단순 서비스를 전달하고, 평가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토론하는 사회복지사 학습동아리 '복지마중물'에 참여하면서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조합이 설립되면서 마중물의 식구로 함께하며, 마리아처럼 이상도 꿈꿀 수 있는 마리아(마르다+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복지마중물'처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회를 둘러볼 수 있도록 토론하는 모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샘은 이러한 소통과 토론의 광장입니다. 광장에는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즐기기도 하고, 교육을 듣기도 하고,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 토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장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신(준) 조합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광장에 들어서서 저처럼 이상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선
마중물 사무국장

■
 발행처 |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발행인 | 김학성
 편집간사 | 김지선
 편집디자인 | 로로브레인 주식회사
 발행일 | 2018년 1월 31일
 주소 |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75 B104
 전화 | 032 205 6648
 팩스 | 032 232 4460
 홈페이지 | www.masambooks.com
 이메일 | waterforchange@hanmail.net



|목요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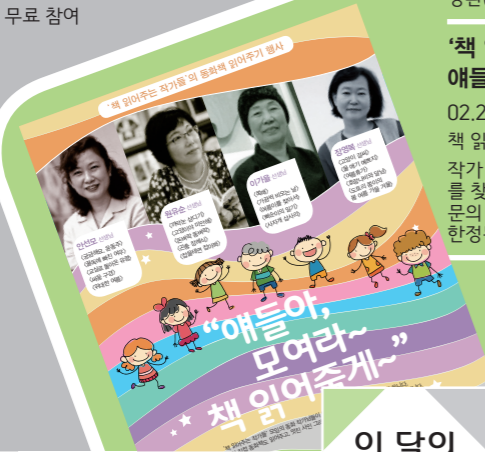
매주 목요일마다 책, 영화, 정치이슈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습니다.
<목요광장>은 나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만들고, 나의 생각과 나를 둘러싼 관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나를 향한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강좌입니다.

02.01 책읽기	<이상한 정상가족>	유해숙 교수
02.08 영화읽기	<라스트 홈>	이현숙 교수
02.22 세상읽기	<이슈 따라잡기>	유범상 교수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7-9시

장소 | 플랫폼 마중

※ 오픈강좌로 신청 없이 무료 참여



이 달의
문화광장

|심미안|

마샬에는 취미생활, 자기계발, 문화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나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는 눈(심미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캘리그래피

일시 | 매주 수요일(오전반 10시~12시, 오후반 7시~9시)

장소 | 세미나실 일상방(마샬)

회비 | 10만원(음료 1개 포함, 교재 및 재료비 별도)

문의 및 신청 | 032-423-0990, 010-3865-4974(문자전용)



|제르미날|

마샬은 매주 제르미날('새싹이 돋는 달')의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제르미날] 문의 및 신청 | 032-423-0990, 010-3865-4974(문자전용)
입금계좌 : 농협 301-0219-2031-51

'인천, 다(多)답다' 북콘서트

02.10(토) 오후8시 | 플로리안 공감
참가비 : 1인 1만원 (음료1개 포함)

우리 지역 인천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북콘서트 진행
문화예술작가 | 송정로(인천in대표), 유동현(굿모닝인천 편집장), 고제민(화가), 양진채(소설가), 이종복(시인), 이설야(시인), 이한수(시인),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유광식(작가)

'책 읽어주는 작가들'의 동화책 읽어주기 애들아, 모여라~ 책 읽어줄게!

02.25(일) 오후3시 | 플로리안 공감 | 참가비 무료
책 읽어주는 작가들과 함께 동화 구연, 사인회, 포토타임 진행
작가 | 안선모(위대한 여를 외), 원유순(곤충장례식 외), 이가을(여름이
를 찾아서 외), 장영복(고양이 걸씨 외)
문의 및 신청 | 010-3865-4974에 참여어린이 이름으로 신청
한정된 장소 관계로 100명의 어린이 이 초대

|갤러리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자
그림, 사진, 글, 역사자료 등을 전시합니다.

인천, 답다

잊혀져 가는 포구 이야기, 고제민 작가는 아픈 역사와 고단한 삶이 깃든
곳이 다 사라져 없어지기 전에 그 자취라도 남겨 뒤야 한다는 심정으로
붓을 들었다. 아련한 향수라도 느낄 수 있도록...

01.18~02.21 | 갤러리 미래(마샬 갤러리)

*오픈전시로 신청 없이 무료 관람

그림책 원화전 : 점으로 그린 세상

점 하나하나가 그저 점일 뿐이지만, 여럿이 모이면 씨앗이 되고, 꽃잎이
되고, 나비가 됩니다. 무수한 작은 점으로 사물과 풍경을 표현하는 점묘화
는, 마치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
연과도 닮았습니다.

02.22~03.07 | 갤러리 미래(마샬 갤러리)

*오픈전시로 신청 없이 무료 관람



유범상 교수의 BOOK REVIEW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을!

양이 사람을 잡아먹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다' 자본주의의 탄생의 장면은 <유토피아>에 나타난 토마스 모어의 증언에서 압축적으로 표현된다:

양은 보통 아주 온순하고 조금밖에 먹지 않는 동물인데, 이제는 아주 게걸스럽고 사나워져서 사람들까지 먹어 치운다고 들었습니다.

양의 먹이가 된 사람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토머스 모어의 표현은 실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양은 보통 아주 온순하고 조금밖에 먹지 않는 동물인데, 이제는 아주 게걸스럽고 사나워져서 사람들까지 먹어 치운다고 들었습니다. 양 떼들은 경지, 가옥, 도시들을 황폐시킵니다.

여기에서 양떼들은 토지에서 농민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이것을 인클로저운동(enclosures)이라고 명명되었다. 인클로저는 '울타리치기'로 번역될 수 있는데, 양을 키우기 위해 울타리 치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랬을까? 신



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중세는 토지가 영주에게 속해 있었지만 그가 가진 것은 점유권이지 소유권은 아니었다. 그런데 인클로저 운동은 그 토지가 내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었고 이것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탄생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 부랑인, 도적이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고발하면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진 쫓겨난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

꽃들에게 희망을

사람들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자유(free)를 얻었다. 그런데 영어 ‘free’는 자유를 뜻하지만 다른 한편 ‘결핍’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삶의 터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성적인 결핍의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이제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기 위해 경쟁한다. 양을 소유한 사람들은 점점 부유해지는데 쫓겨난 사람들은 점점 빈곤해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결국 ‘20대 80 사회’에서 ‘1대 99 사회’로 나아간다.

흔히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말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존재인 것이다. 협력이 있을지라도 경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협력이 더 이상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순간 종로될 운명에 처해진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전면화되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심성을 타고난 것으로 간주된 인간은 늘 고독해 보인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프스와 같은 운명이랄까. 그는 신을 속이고 저항한 죄로 큰 돌덩이를 산꼭대기까지 올려야 하는데, 이 바위를 올려놓으면 바로 떨어지고 떨어지곤 하는 고되고 무의미한 노동의 형벌을 받은 고독한 존재이다.

이 고독한 시지프스들이 무한질주하는 전쟁터가 오늘날의 한국사회이다. 하지만 위태로기 그지없던 초등학교부터 입시를 준비하지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만들고 시간을 쪼개 스펙을 쌓아도 정규직의 팬참은 일자리에 안착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이다. 장시간 노동과 업적을 요구하는 직장생활도 고달프기 그지없고 결혼이라도 하면 양육비와 자녀교육으로 시지프스의 고독 노동은 가중된다. 가히 잔혹한 형벌이라고 할만하다.

<꽃들에게 희망을>은 이 형벌을 이겨낼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만 이내 깨달게 됩니다. “그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결국 무한경쟁은 무의미한 노동을 하는 시지프스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한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노랑애벌레는 나비가 되어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노랑애벌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상대를 짓밟고 이기는 것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고유성을 발견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사람을 잡아먹는 양떼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이 가능할까? <유토피아>의 토마스 모어는 거지, 부랑인, 도적의 증대원인을 사회적 불평등과 사유재산의 등장에서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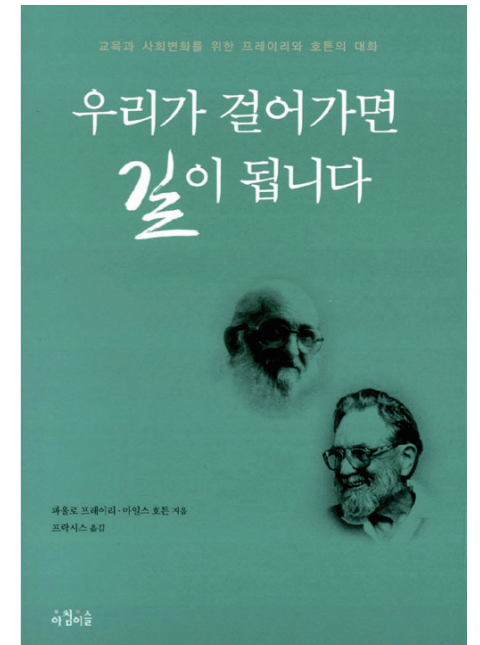
사유재산이 철폐되지 않고는 바르고 균등한 재화의 분배나 인간세계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존속하는 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류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선량한 사람들이 빈곤과 불행의 무거운 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개인의 결단이나 성찰은 구조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즘 한국사회를 보면서 <유토피아>의 통찰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현재 한국사회는 계층이동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순응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담론이 된 ‘수저론’은 신분상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고 태어난 수저는 평생을 간다. 이것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삶은 매우 단조롭고 고독하다.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이고 그의 삶은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적응하고 순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무한반복되는 지루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살이나 종교적인 귀의 이상의 것이 없어 보인다.

프레이리와 호튼의 대화록인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는 진정한 ‘꽃들에게 희망’이 가능하려면 혼자만의 성찰이나 자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준다. 그것은 줄무늬 애벌레와 함께 꼭대기로 올라가려던 모든 애벌레들이 이 부조리한 상황을 자각하고 함께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둘러싼 성찰과 실천을 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혼자가 아니라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비판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상을 상상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상상은 내 공간에서 나다운 것을 찾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야 한다. 각자의 공간에서 고민하는 애벌레‘들’이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될 것이라는 설레임에 사로잡힌다. ■



조 합 원 광 장

이 달 의 조 합 원



고유숙 조합원

마중물로서 도착한 나!

바람의 섬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뵙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레터 상상상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사는게 즐겁고 제 자신이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좋습니다. 이런 저를 만들어 준 건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삶도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마중물은 제 마음 한 켠에 꿈꾸고 있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실천과 지혜가 필요한지 알려주고 고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범상 교수님이 방송대 사회복지개론 첫 강의에서 여는 멘트를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외치시더라구요. 순간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그리고 종강이 될 때까지 들으면서 왜 내가 상상상을 외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유범상 교수님께서 특강을 오셨다가 책모임을 제안하셨고 교수님을 존경하는 제자들로 메워졌던 자리라 이때다 싶어 모임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드락’(모드락은 제주방언으로 ‘함께 모여 있는 모양새’라는 뜻으로 연대를 통해 모두가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지님)이라는 이름으로 제주 마중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드락 책모임을 시작한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바쁜 일상에서도 동료들과 고민하기 위해 참석하며 나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

조 합 원 광 장

고 각자가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사실논리가 누군가의 의해 강요되고 왜곡된 것일 수 있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들을 보려 소통하고 학습하며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야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드락에서 고민한 결과들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17년은 제주 마중물 모드락이 비상한 한 해여서 저에게 의미가 컸던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전국에 계신 마중물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더 없이 소중한 일들이었습니다. 대흥사에서 진행되었던 연합애틀, 마샘 오픈데이, 마중물 파티를 참여하면서 만난 마중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삶의 실천을 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다독이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열정적인 선배시민들의 모습은 제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끝으로 협동조합 마중물 문화광장 설립취지처럼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유와 차별의 세상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장이 되기를 제주에서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

조 합 원 광 장

조 합 소 식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총회 및 2차 조합원사랑방 안내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에서 바쁘게 달려온 2017년을 정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며 조합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총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협동조합의 운영내용 및 2018년 계획을 보고하고 제2회 조합원 사랑방도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조합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2월 3일, 15시~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센터 503호

총회 및 사랑방 일정

내용	일정	세부 내용
정기총회	15:00~16:00	총회운영(예결산 및 사업보고, 사업계획 승인 등) * 의결권은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조합원사랑방	16:00~17:30	조합원 나눔 시간(강의 및 토론)
	17:30~18:30	저녁 및 담소

총회 의결 사항 |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 안건

사단법인마중물,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복 합문화서점마샘 임직원 신년회



1월 4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마샘 플로리안 공감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사단법인 마중물,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복합문화서점마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신년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한 새해 덕담과 2018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김학성 이사장님의 훈훈한 새해 인사말, 사단법인마중물 유해숙 이사장님의

케익, 마샘 이재필 대표님의 개인 소장하셨던 만년필 선물까지! 함께 하는 동료들과 힘찬 새해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신년회였습니다.

조 합 원 광 장

복합문화서점 마샘 오픈에 도움주신 분들과 함께한 감사파티

1월 27일 토요일, 이른 저녁인 오후 5시에 플랫폼 마중에서 복합문화서점 마샘의 오픈준비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함께 모여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와 주재민 아동의 클라리넷 축하공연에 이어, '서가 중 경제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문학 분야는 제가 정리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홍보지를 돌리며 마샘 오픈을 알렸습니다.' 등 어떤 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셨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샘 오픈식 전 준비기간들을 떠올리며 추억을 나누고, 다시 마샘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ook Letter 상상상 마샘 추천도서 정기구독 서비스 오픈!

책을 매개로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나와 공동체를 찾아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 'Book Letter 상상상'. 토론하는 동료들과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깊이 있게 둘러보고 보다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가야할 길을 묻고 싶다면 마샘의 추천도서 정기구독 서비스 'Book Letter 상상상'을 권합니다.

첫째 | 매달 배달되는 책

- 매달 10일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나의 지성지수도 매달 Up! Up! Up!

둘째 | 막 나온 따끈따끈한 책

- 출간 2개월 이내의 신간이 소개됩니다.
- '지금'의 나와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 토론하는 동료들 매개하는 책

- Book Festival(6월, 12월)은 토론하는 동료와의 만남, 학습, 토론을 매개합니다.
- 전국의 마중물 학습동아리들도 함께 합니다.

넷째 | 학습동아리를 매개하는 책

- 이 책을 공유하는 3인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 함께 공부한다면, Book Letter상상상은 학습동아리 형성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 유범상 교수의 해설이 있는 책

- 책에 대한 소개와 해설이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 함께 결들이면 좋은 책, 영화, 영상 등도 담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step 1 ▶

- 가입신청서 작성 (구글독스 또는 첨부한 신청서에 작성)

step 2 ▶

- 가입비 20만원 계좌입금 및 카드결제(입금 월 기준, 12개월 단위로 적용)
- 입금계좌 농협 301-0223-0349-51(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step 3 ▶

- 입금확인 후 SMS 안내로 신청완료
F. 032-423-0993
H. 010-3865-4974(문자전용)
문의 : 마중물사무처 032-205-6648
신청서 작성 구글독스 :
<https://goo.gl/UnDPJ1>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은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에 함께 할 조합원을 기다립니다

| 조합원 가입 방법 |

아래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바랍니다.

- 이메일 | waterforchange@hanmail.net
- 팩스 | 032-232-6640
- 문자 | 010-6744-6648
- 문의 | 032-205-6648 (김지선 사무국장)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조합원 가입신청서

본인은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의 목적과 취지에 동참하고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연락처	
가입유형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input type="checkbox"/> 준조합원 ※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해 주세요		
출자좌수	()구좌 ※ 1구좌 이상 신청가능		

조합원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1회의 출자로 회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합원의 1구좌는 100만원이며, 준조합원의 1구좌는 10만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8801-04-215706(예금주 :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201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이사장 귀하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협동조합 운영과 이용에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준조합원은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협동조합 이용 시 아래와 같이 혜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서적 할인	문구, 음료, 공연, 강연 할인	조합운영 의결권	적립
조합원	10%	20%	○	1%
준조합원		15%	×	